

蟻螞에 대한 文獻考察

조남경 · 김종덕*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사당한의원

Abstract

Literature Investigation of Jejo(蟻螞)

Cho Nam-Kyung · Kim Jong-Dug*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 *Sa-dang Korean Medical Clinic

1. Objectives

The object of this thesis is to find the basis on why Jejo(蟻螞) was assigned as a Taeumin medicine, and to understand Taeumin edema.

2. Methods

『Dongyisusebowon』 ‘Shinchukbon’, ‘Gabobon’, ‘Chobonkwun’, other related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SCM) books, herbal medicine books such as 『Bonchokangmok』, and etc. were compared and researched.

3. Results & Conclusions

- (1)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edema is seen as a critical condition. The first cause of edema in Taeumin is fatigue, a condition where the flow of Qi and Fluid Qi is stagnated. Secondly, edema is caused as Taeumin is mentally stressed(勞心焦思) and he/she is unable to accomplish his/her plans over many trials or as when they find pleasure in striving for greed. When Lungs which is Incline & Small Viscera(偏小之臟) in Taeumin decreases, it diminishes Real Count of Longevity(命脈實數) which leads to edema formation.
- (2) Perspective of Human Nature & Character(心性學) and Regimen(養生法) became included gradually in the treatment methods and prescription of edema in Taeumin as 『Dongyisusebowon』 was revised over time. The revisions also lead to more diversity in prescriptions.
- (3) Jejo didn't appear in 『Dongyisusebowon』 ‘Chobonkwun’ and ‘Gabobon’. It was first presented in ‘Shinchukbon’ as a medicine to treat edema in Taeumin.
- (4) Jejo have effects of easing clumps. Also it has a strong radiating ability(發散力) which induces perspiration to treat diseases. Finally Jejo is used to remove Takki(濁氣) by utilizing powerful Exhale Gathering Qi contained in it.

Key Words: Taeumin, Edema, Jejo(蟻螞), White Grub

I. 緒 論

李濟馬의 四象醫學은 기존의 證治醫學과는 달리 氣液之氣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太陰人, 太陽人의 생리기전을 설명하였다¹⁾. 이것은 그동안 잘 설명되지 못했던 여러 생리, 병리적 양상 및 새로운 치료법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浮腫과 그 치료법의 경우 『東醫寶鑑』(1613)에서는 肺·脾·腎의 이상을 부종의 원인으로 보며²⁾, 補中·行濕·利小便의 세 가지를 치료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³⁾. 이와 달리 『東醫壽世保元·辛丑本』(1901)에서는 각 체질별로 부종의 원인과 치료법을 달리 보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각 체질별로 少陰人 浮腫은 虛冷이 원인이며 치료법으로 補中을 제시하고 있고, 少陽人 浮腫은 熱이 원인이며 치료법으로 利小便을 제시하고 있으며, 太陰人 浮腫은 肺의 升降作用의 실조와 肝熱이 원인이며 치료법으로 發汗을 제시하고 있다⁴⁾. 하지만 이는 사상의학의 입장이 아니라 증치의학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며, 더욱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의학에서는 蟻螻(곰뻥이)를 부종에 사용한 예가 없고, 동무공도 초기에는 蟻螻를 언급하지 않다가 말년에 와서야 비로소 太陰人 浮腫의 治療藥이라고 한 것에는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蟻螻의 연구를 통하여 四象醫學의 치료정신과 변화양상을 이해하고, 太陰人 浮腫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통칭 곰뻥이라고 하던

것들 중에서 어떠한 것을 蟻螻로써 사용하여야 하는지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또한 太陰人 浮腫의 기전을 바탕으로 太陰人 浮腫의 치료법을 밝히며, 蟻螻의 太陰人藥 배속근거를 古書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本 論

1. 蟻螻의 유래와 특징

1) 곰뻥이의 기원

약 3000여 년 전, 春秋時代 이전의 시를 모은 『詩經』에는 ‘목덜미가 곰뻥이와 같구나’⁵⁾라는 구절이 보인다. 『詩經』 「碩人」편은 장공(莊公)의 부인인 장강(莊姜)의 아름다운 모습을 찬미한 노래로 주자(朱子)가 주를 달아놓기를 ‘領은 목[頸]이며, 추제(蝻螻)는 나무벌레의 하얗고 긴 것이다’⁶⁾라고 하여 부인의 목이 길고 희었음을 흰 나무곰뻥이에 비유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3000여 년 전에도 주변에서 곰뻥이를 흔히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양 最古의 본초서적인 『神農本草經』에는 ‘맛은 짜며, 성질은 약간 따뜻하다. 악혈(惡血)과 어혈(瘀血)로 저린 것을 낮게 해주고, 옆구리 아래에 혈이 단단하게 멎어서 아프게 된 것을 깨뜨리며, 무월경, 목중음부(目中淫膚)나 청예(靑翳), 백막(白膜)을 치료한다. 일명 비제(蝻螻)라고 한다’⁷⁾라고 효능 및 이명을 적어 놓았다. 곰뻥이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만큼, 약으로써 그 가치를 일찍 알게 된 것이다.

2) 곰뻥이의 분류

곰뻥이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뎅이류의 유충으로 성충의 종류에 따라 그 가짓수가 많고 다양하여 혼돈하기 쉽다. 『本草綱目』(1596)에

1) 『東醫壽世保元·辛丑本』 「四端論」 肺以呼 肝以吸 肝肺者 呼吸氣液之門戶也 脾以納 腎以出 腎脾者 出納水穀之府庫也
2) 『東醫寶鑑』 「浮腫」 腎熱 傳於膀胱 熱盛逆於脾胃 脾虛而不能制腎水 脾主四肢 故流走而身面 皆腫也 若加喘者 重也 何以然 腎水勝而克退脾土 反勝心火 又勝肺肺爲心克 故喘也 (錢乙)
3) 『東醫寶鑑』 「浮腫 治腫脹大法 宜補中 行濕 利小便 以人參 白朮爲君 蒼朮 陳皮 茯苓爲臣 黃芩 麥門冬爲使 以制肝木 少加厚朴 以消腹脹 氣不運 加木香 木通 氣下陷 加升麻 柴胡 此補中治濕湯方也 (丹心)
4) 『浮腫에 대한 證治醫學과 四象醫學의 病理와 藥理의 연관성의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1993;5(1):133-138.

5) 『詩經』 「衛風 碩人」 手如柔荑 膚如凝脂 領如蝻螻 齒如瓠犀 螻首蛾眉 巧笑倩兮 美目盼兮
6) 『詩經』 「衛風 碩人」 領 頸也 蝻螻 木蟲之白而長者
7) 『神農本草經』 味鹹微溫 主惡血血瘀 癩氣 破折血在脇下堅滿痛 月閉 目中淫膚 靑翳白膜 一名蝻螻

Table 1. The Inhabit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ypes of Grubs Presented in 『Bonchokangmok』

명칭	서식지	특징 및 비교
蠶 蠕	① 別錄曰 生河內平澤 及人家積糞草中 ② 時珍曰 生樹根及糞土中者 外黃內黑 生舊茅屋上者 外白內黯 ③ 敷曰 蠶蠕須使桑樹柏樹中者妙	① 別錄曰 反行者良 ② 時珍曰 其狀如蠶而大 身短節促 足長有毛
乳 蟲	時珍曰 按白癩髓云 廣中韶陽屬邑鄉中 有乳田	굴뚝이 대신 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음.
木 蠹 蟲	① 郭璞云 凡木中蠹蟲 通名爲蠹 但所居各異耳 ② 藏器曰 木蠹一如蠶蠕 生腐木中 穿木如錐	① 節長足短, 至春兩化爲天牛 蘇恭以爲蠶蠕 深誤矣 ② 時珍曰 似蠶而在木中食木者 爲蠹 似蠶而在樹上食葉者 爲蠹 似蠶而小行則首尾相就屈而後伸者 爲尺蠖 似尺蠖而青小者 爲螟蛉 三蟲皆不能穴木 至夏俱羽化爲蛾
桑 蠹 蟲	桑蠹이니 桑木에 서식함.	
柳 蠹 蟲	時珍曰 柳蠹生柳木中甚多	內外潔白 至春夏化爲天牛 諸家註蠶蠕多取之 亦誤矣
桃 蠹 蟲	別錄曰 食桃樹蟲也	
桂 蠹 蟲	藏器曰 此桂樹中蟲 辛美可啖	
柘 蠹 蟲	柘木에 서식	
棗 蠹 蟲	時珍曰 此卽蠶蠕之在棗樹中者	
竹 蠹 蟲	時珍曰 竹蠹生諸竹中	狀如小蠶 老則羽化爲硬翅之蛾
蘆 蠹 蟲	藏器曰 出蘆節中	狀如小蠶
蒼耳蠹蟲	時珍曰 蒼耳蠹蟲 生蒼耳梗中	狀如小蠶
青蒿蠹蟲	時珍曰 此青蒿節間蟲也	狀如小蠶 久亦成蛾
阜莢蠹蟲	阜莢에 서식	
茶 蛀 蟲	時珍曰 此裝茶籠內蛀蟲也	

보면 乳蟲·木蠹蟲·桑蠹蟲·柳蠹蟲·桃蠹蟲·桂蠹蟲·竹蠹蟲·蒼耳蠹蟲 등으로 굴뚝이와 유사한 종류가 매우 많으며, 그 중 乳蟲은 蠶蠕에 대하여 먹기도 하였다고 하였을 정도이다⁸⁾.

이러한 蠶蠕에 대하여 그 성충의 모습과 생활 습관을 정확히 아는 것은 올바른 분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약 2200년 전에 출간된 동양최고의 한문사전인 『爾雅』에는 ‘비(蟻)는 제조(蠶蠕)다. 추제(蠶蠕)는 갈(蠶)이다. 갈(蠶)은 상두(桑蠹)다. 갈(蠶)은 길굴(蛄蛄)이다’⁹⁾라고 나와 있으며, 이것을 다시 『說文解字注』에서 ‘추제(蠶蠕)와 갈(蠶)은 나무에 산다고 하였고, 비(蟻)와 제조(蠶蠕)는 분토(糞土, 거름) 중에 사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닮았지만 다르다고 하였다’¹⁰⁾라며 蠶蠕과 유사한 桑蠹蟲은 나무에 살고 蠶蠕는 糞土와 같은 곳에 산다고 하였다.

조선시대 서적에도 蠶蠕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다. 약 200여 년 전의 백과사전인 『廣才物譜』에서는 ‘蠶蠕는 糞土 안에 있고 형상은 누에와 비슷하다. 다리가 길고 털이 있으며 몸이 짧고 마디도 좁다. 색은 희다’¹¹⁾라고 하였으며, ‘갈(蠶), 러(蠶), 추제(蠶蠕), 길굴(蛄蛄), 주충(蛀虫), 상두(桑蠹)는 뽕나무 안에 산다’¹²⁾라며 제조의 서식지와 형태를 알려준다. 유희(柳禧, 1773~1837)의 『物名考』(1820)에는 ‘등으로 기어가며 흙 가운데서 생겨나는 것을 제조라고 한다’¹³⁾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책들에서 蠶蠕의 서식지나 성충의 모습을 다르게 설명하여 혼동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대개의 곤충애벌레가 유사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옛 의서와 더불어 현대곤충학적 고찰이 필요하다.

8) 『本草綱目』 「乳蟲」, 服食用此代蠶蠕 更覺有功無毒
9) 『爾雅』 蟻 蠶蠕 蠶蠕 蠶 蠶 桑蠹 蛄蛄 蛄蛄
10) 『說文解字注』 「蠶蠕」, 釋蟲 蠶蠕 蛄蛄 郭云在木中者 蟻 蠶蠕 郭云在糞土中者也 是二者 似同而異

11) 『廣才物譜』 蠶蠕굴뚝이 在糞土中 狀如蠶 足長有毛 身短節促 色白
12) 『廣才物譜』 蛄 蠶 蠶蠕 蛄蛄 蛄蛄 蛄蛄 桑蠹 生桑木中
13) 『物名考』 「蠶蠕」 背行之 物生于土中者 曰蠶蠕 蛄蛄 명어

예전에는 굼벵이가 자라면 매미(蟬)가 된다고 잘못 생각한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 사전적인 『訓蒙字會』(1527)에서는 蟻蛸를 ‘씩은 풀에서 생겨나는데 가을이 되면 변화하여 매미가 된다’¹⁴⁾라고 하였고, 『閩閩叢書』(1809)에서도 ‘굼벵이는 썩은 짚에서 생겨 땅에 들어 매미가 된다’¹⁵⁾라고 하였다. 鄒謙(1790~1844)의 『本經疏證』¹⁶⁾과 『本草思辨錄』(1904)¹⁷⁾ 등 여러 의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많은 예를 찾아볼 수 있다.

현대의 연구에 의하면 ‘굼벵이의 모습은 누에 처럼 머리가 단단한 반구형이며 색깔은 대개 황갈색 내지 흑갈색이다. 몸통이 비교적 짧은 원통형이며 피부가 얇아서 몸이 연하고 유유 빛을 띤다. 다리는 세 쌍이며 대개 짧고 이동속도가 매우 느리다. 완전변태를 하기 때문에 다 자란 굼벵이는 번데기를 거쳐 풍뎡이가 된다. 매미의 애벌레도 몸이 뚱뚱하고 흰색이며 행동이 느려서 굼벵이와 비슷하다. 하지만 앞다리가 유난히 크고 불완전변태를 하기 때문에 날개 없는 매미의 모습을 하고 있다’¹⁸⁾라고 한다. 매미의 애벌레가 느리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예전 사람들이 매미의 유충을 굼벵이로 잘못 본 것 같다. 실제로 매미의 암컷 성충은 나뭇가지 속에 알을 낳으며 이로 인해 산란된 가지의 끝 부분이 죽는다. 부화한 매미의 약충(若蟲)¹⁹⁾은 땅에 떨어져서 땅 속으로 파헤치고 들어가며 식물뿌리의 즙액(汁液)을 먹고 산다²⁰⁾.

『本草綱目』에서는 굼벵이와 유사한 유충들을 서식지에 따라 분류하여 놓았다(Table 1).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蟻蛸가 서식한다고 의심되는 곳은 나무뿌리(樹根), 거름 속(糞土中), 오래된 초가지붕(舊茅屋上), 뽕나무와 측백나무의 속(桑樹柏樹中)이다. 그 중 나무에 사는 것들은 蟻蛸가 아닌 蝸로 분류가 되며, 나무뿌리에서 즙액을 먹고 사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미의 종류이다. 『東醫寶鑑』(1613)에서도 蟻蛸에 대하여는 人家의 糞草를 쌓아 놓은 곳에 산다고 하면서 뽕나무나 버드나무에 사는 것이 좋다²¹⁾고도 하지만, 『本草綱目』의 내용과 함께 고찰해보면 糞土와 舊茅屋上에 서식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은 本經의 내용과도 합치된다²²⁾.

조선 시대에 사용되던 蟻蛸가 어떠한 종류였냐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동무공의 蟻蛸에 대한 인식도 그 시대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시대 의서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鄉藥集成方』(1433)에서는 ‘人家의 糞草를 쌓아둔 곳에서 생기며 수시로 채취한다. 등으로 기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 ‘蟻蛸라는 벌레는 뽕나무와 버드나무 안에서 얻은 것이 좋다. 나머지 곳에서는 적당하지 못하다. 糞土의 것은 가히 악창(惡瘡)에 붙일 수 있다’²³⁾라고 하였다. 『東醫寶鑑』(1613)에서는 ‘人家의 糞草를 쌓아둔 곳에 살며 수시로 채취한다. 등으로 기어가는 것이 좋다. 이 벌레는 등으로 기어가는 것이 다리로 기어가는 것보다 빠르다. 뽕나무와 버드나무 속에 있는 안과 밖이 깨끗하고 하얀 것이 좋다. 그러나 등으로 기어가는 것이 아니면 진짜 蟻蛸가 아니다’²⁴⁾라고 하였다. 徐有渠(1764~1845)의 『仁濟志』에는 ‘蟻蛸는

14) 『訓蒙字會』 「昆蟲」 腐草所化 至秋化爲蟬

15) 『閩閩叢書』 「化生類」 제도(굼벵이)는 썩은 집희서 생겨 딱히 드러 미암이가 되고

16) 『本經疏證』 「蟻蛸」 夫未化蟻蛸已前 固最穢濁 既蛻爲蟬以後 始最清潔

17) 『本草思辨錄』 「蟻蛸」 蟻蛸生於糞壤 糞壤猶人身之惡血 迨其變蟬 則吸風飲露 最爲清潔 猶人身之目不容纖塵 故其破瘀血 則蟻蛸之出於糞壤也 主目中淫膚青翳白膜 則蟻蛸之變蟬化穢濁爲清潔也 仲聖蠅蟲丸 正以其兩目黯黑而用之 然虛勞而非有血瘀者不宜

18) 김진일 글, 이원규 사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곤충 백가지. (주)현암사, 서울, 2002:172-173.

19) 약충(若蟲)은 불완전변태(不完全變態)를 하는 곤충의 유충이다. 일반적으로 유충(幼蟲)이라고도 하나, 완전변태를 하는 곤충의 유충(larva)과 구별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20) 우건석. 昆蟲分類學. 집현사, 서울, 1988:152.

21) 『東醫寶鑑』 「眼」 生人家積糞草中 取無時 反行者良 此蟲 以背行反駁於脚 (本草) 生桑柳樹中 內外潔白者 佳 生糞中者 止可 敷瘡疽 採取陰乾 糯米同炒 米焦 取出去口畔 及身上黑塵了 乃可用 (入門)

22) 『本草綱目』 「蟻蛸」 正與本經蟻蛸生積糞草中相合

23) 權採·俞孝通·盧重禮·朴允德, 『鄉藥集成方』, 「蟻蛸」, 生人家積糞草中 取無時 反行者良 (中略) 日華子云 蟻蛸蟲 桑柳樹內收者 佳 餘處即不中 糞土者 可傳惡瘡

24) 『東醫寶鑑』 「蟻蛸」 生人家積糞草中 取無時 反行者良 此蟲 以背行反駁於脚 (本草) 生桑柳樹中 內外潔白者 佳 生糞中者 止可 敷瘡疽 採取陰乾 糯米同炒 米焦 取出去口畔 及身上黑塵了 乃可用 (入門) 然不背行者 非盡蟻蛸也 (俗方)

Table 2. Changes in Terminology of Jejo(蟻蝮) in the Korean Language

古 書	蟻蝮의 한글표기
鄉藥救急方(1417)	夫背也只 (부백여기 ²⁵⁾)
鄉藥集成方(1433)	久音方伊
救急簡易方言解(1489)	곰병이
訓蒙字會(1527)	곰병이
諺解痘瘡集要(1608)	곰병이
東醫寶鑑(1613)	곰병이
舟村新方(1687)	곰병이 곰빙이
增補山林經濟(1766)	곰병이
閩閩叢書(1809)	곰병이
物名考(1830)	곰병이
廣才物譜(미상)	곰병이
朝鮮語辭典(1920)	곰병이

평야 및 늪지대와 人家의 糞草를 쌓아둔 곳에 살며 등으로 기어가는 것이 좋다.’²⁶⁾라고 한다. 『本草彙英』에서는 ‘蟻蝮는 糞土에 사는 것을 거두어 陰乾한다.’²⁷⁾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여러 의서에서 蟻蝮의 서식처를 퇴비, 뽕나무, 버드나무의 세 곳에서 사는 것으로 인식하였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蟻蝮는 ‘등으로 기어가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 공통적으로 나온다. 이는 蟻蝮가 등으로 기어간다는 특징을 설명함으로써 겉으로는 유사하지만 주로 특정한 애벌레가 약용 곰뻥이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곰뻥이가 등으로 기어가는 것이 일견 이상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곰뻥이 중에는 등으로 기어가는 종이 있는데, 이는 최근의 논문에서도²⁸⁾ 밝혀 놓았듯이 糞草나 오래된 이엉에 사는 꽃무지풍뎡이(Family Cetoniidae.)의 애벌레이다. 등으로 기어가는 것은 짧은 다리대신 등판에 난 줄털

들이 뱀의 비늘처럼 이동을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²⁹⁾

2. 太陰人 浮腫의 원인과 치료법

1) 太陰人 浮腫

동무공은 『東醫壽世保元·草本卷』에서 질병의 정도를 8개로 분류하여 놓았다. ‘첫 번째는 신선도수(神仙度數)라하고 상태가 가장 높고 좋은 것이다. 두 번째는 청량도수(淸朗度數)라하고 정신이 맑고 명량한 것이며, 세 번째는 쾌경도수(快輕度數)라하고 몸이 상쾌하고 가벼운 것이다. 네 번째는 강녕도수(康寧度數)라하고 온몸이 편안한 것이며, 다섯 번째는 외감도수(外感度數)라하고 겉의 기운이 밖에서 이지러진 것이다. 여섯 번째는 내상도수(內傷度數)라하고 속의 기운이 안에서 손상된 것이며, 일곱 번째는 뇌옥도수(牢獄度數)라하고 병에 걸린 상태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 같은 것이다. 여덟 번째는 위경도수(危傾度數)라하고 목숨이 위험한 지경에 이른 것이다.’³⁰⁾라고 하여 命脈實數의 정도를 구분할 수 있도록 나누어 놓았고 그 안에서 각각 초, 중, 말의 단계가 있어, 8절을 24절로 세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³¹⁾.

29) 박해철. 딱정벌레. 다른세상, 서울, 1992:126.

30) 李濟馬의 草本卷을 해석해놓은 책으로는 朴性植譯解.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集文堂, 서울, 2003과 金達來編譯. 東醫壽世保元 草藥. 鼎談, 서울, 2001 두 가지가 있는데, 위경도수(危傾度數)에 대한 원문과 해석에서 차이가 있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는 ‘第八截 名曰危傾度數 言其命遂危境’이라고 하였고, 東醫壽世保元 草藥에서는 ‘第八截 名曰危傾度數 言其命遂危傾’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는 위 문장의 해석을 ‘여덟째 부분은 위경도수(危境度數)라 이름하고 목숨이 위험한 지경에 이른 것을 말한다.’고 하여 위경도수(危傾度數)를 위경도수(危境度數)로 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오류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그 점을 참고하여 이 부분의 원문은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을 해석은 東醫壽世保元 草藥를 따랐다.

31) 『東醫壽世保元·草本卷』 「病變 臟部一半 命脈實數 平分八截 第一截 名曰神仙度數 言其最高也 第二截 名曰淸朗度數 言精神淸朗也 第三截 名曰快輕度數 言一身快輕也 第四截 名曰康寧度數 言百體康寧也 第五截 名曰外感度數 言表氣外虧也 第六截 名曰內傷度數 言裏氣內損也 第七截 名曰牢獄度數 言其病如入獄也 第八截 名曰危傾度數 言其命遂危境 命脈之理微 忽難見 難見則難言 略分八截 著而明之 使難

25) 南豐鉉. 借字表記法研究. 檀大出版部, 서울, 1981: 117-118

26) 『仁濟志』, 蟻蝮곰병이 (名醫別錄) 生平澤及人家積糞草中 反行者良 案諸家本草 鹹微溫有毒 治瘡血月閉 目中淫膚 膝折金瘡 下乳汁 點喉痺癢吐血

27) 『本草彙英』, 蟻蝮生糞土中者 收得陰乾 與糯米同炒 至米炒黑取出去米 及身上口畔肉毛 并黑塵了作三四截研

28) 권승만, 김일환, 박해선, 김효수, 임치혜, 조재승. 東醫壽世保元에서 이용된 蟻蝮의 起源에 대한 文獻의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6;18(1):22-29.

이러한 기준에서 浮腫은 위경초분(危傾初分)과 뇌옥말분(牢獄末分)을 넘나드는 위험한 상태며, 부종의 시작은 뇌옥말분이 되고 부종의 극심한 지경은 위경초분의 병증이 된다³²⁾. 또한 ‘명맥이 위경초분에 있게 되면 그 기후가 반년도 지탱하지 못하고 虛勞와 浮腫 등의 末疾이 나타나는데, 뿌리가 깊어 병을 뽑아내기가 어렵다. 증세가 극렬하고 간헐적이며 혹은 약으로 효과를 보기도 하는데, 만약 복약을 잘하고 조리를 극진히 하여 일 년을 지탱하면 일 년 중에 한 달 정도는 병에서 벗어난 좋은 징후가 있다³³⁾’라고 하여 부종은 매우 위험한 증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특히 太陰人에게 浮腫은 중한 증세로 그 치료가 쉽지 않다. 『東醫壽世保元』에서는 태음인의 浮腫에 대하여 열 명 중 아홉이 죽는 정도의 극히 위험한 증상이며, 심지어는 病으로 논하지 말고 生死로 논하라고 되어 있다³⁴⁾. 이와 같은 부종의 원인에 대하여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太陰人이 虛勞로 인하여 氣液之氣의 순환이 정체되는 경우와 侈樂하거나 慾心을 내는 貪人이 되어 保命之主인 呼散之氣가 약해지는 경우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사나 이질 증세에 시달리거나 혹은 마비가 오고 소변이 잘 나가지 않으며, 식후에 더부룩하고 붓는 증상

이 있고 다리에 힘이 없으면 부종이 오게 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하였다³⁵⁾. 후자의 경우에는 태음인이 勞心焦思하여 여러 차례 도모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侈樂하거나 즐겨 욕심을 내는 경우에 浮腫이 발생될 수 있다고 했다³⁶⁾. 태음인이 心慾만을 좇으면 결국 지극히 욕심을 부리는 貪人이 되기 쉽다³⁷⁾. 그렇게 되어 太陰人의 樂이 지극하게 되면 그 즐거움이 반드시 侈心을 채우게 되며, 기뻐하고 嗜好하는 것에 절제가 없어져 태음인의 意[肺意]가 상하게 된다³⁸⁾. 이렇듯 命脈實數인 肺가 깎이게 되면³⁹⁾, 결국 뇌옥말분(牢獄末分)의 상황이 되면서 浮腫 등의 증상이 생기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太陰人 浮腫의 치료 및 예방법

이제마는 太陰人 浮腫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藥物치료의 방법과 더불어 養生法 및 心理치료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⁴⁰⁾. 이는 四象醫學이 단지 장부의 편차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닌 心

見者易見 難言者易言 每一截 亦各有初中終度數 八截又可分爲二十四截

- 32) 『東醫壽世保元·草本卷』「病變」虛勞竭境浮腫極境等症 危傾初分病也 虛勞羸疲浮腫始發等症 牢獄末分病也 危傾初分之病 進復於牢獄末分則免死也 再復於中分則免危也 又再復於初分則生路也 又再復於內傷中末分則 危病得壽次第非難也 如此必經歷十餘年變病 然後方至此境也 蓋痼病難矣哉 盤水可奉而一心難奉 六馬可調 一身難調 痼病免痼不亦難乎 三十命脈在危傾初分 四十命脈在牢獄初分者 有可生之理 而無必生之路 三十分命脈在牢獄末分 四十命脈在牢獄中分 五十命脈在牢獄初分 六十命脈在內傷末分者 有必生之理 而有必生之路
- 33) 『東醫壽世保元·草本卷』「病變」命脈在危傾初分者 自無支撐半年之氣候 虛勞浮腫等末疾顯 有深根難撥之 顯緒然 或劇而間歇 或藥而應效 若善服藥極調理 而支撐一年 則一年間有一月脫病之佳兆 在中分之淺限者 藥或暫應病施如故 此症已屬不治 過中分間限 則藥而益劇遂成壞症
- 34) 『東醫壽世保元·辛丑本』「太陰人泛論」凡太陰人病 若待浮腫已發而治之則十病九死也 此病 不可以病論之而以死論之可也

- 35) 『東醫壽世保元·辛丑本』「太陰人泛論 凡太陰人 勞心焦思 屢謀不成者 或有久泄久痢 或淋病小便不利 食後 痞滿脚腿無力病 皆浮腫之漸 已爲重險病而此時 以 浮腫論而蕩滌慾火 恭敬其心 用藥治之可也
- 36) 『東醫壽世保元·辛丑本』「太陰人泛論」太陰人 有腹脹浮腫病 當用 乾藥螬蟻湯 此病 極危險證而 十生九死之病也 雖用藥病愈 三年內 不再發然後 方可論生 戒侈樂 禁嗜慾 三年內 宜恭敬心身 調養慎攝 必在其人矣
- 37) 『東醫壽世保元·辛丑本』「四端論 人趨心慾 有四不同 棄禮而放縱自 名曰鄙人 棄義而偷逸自 名曰懦人 棄智而飾私自 名曰薄人 棄仁而極慾自 名曰貪人
- 38) 『東武遺稿』「下篇·總論 怒極者 怒之不勝其忿 而悲哀動中 則肝魂傷也 喜極者 喜之長往不返 而逸樂無已 則脾魄傷也 哀極者 哀之極竭癡瘋 而恐懼共守 則腎志傷也 樂極者 樂之必充侈心 而喜嗜無節 則肺意傷也
- 39) 『東醫壽世保元·草本卷』「病變」太陽人 財權酒色 凡百內傷外觸 皆損肝 故太陽人 以肝臟剝削 爲命脈長短 太陰人 財權酒色 凡百內傷外觸 皆損肺 故太陰人 以肺臟剝削 爲命脈長短 少陽人 財權酒色 凡百內傷外觸 皆損腎 故少陽人 以腎臟剝削 爲命脈長短 少陰人 財權酒色 凡百內傷外觸 皆損脾 故少陰人 以脾臟剝削 爲命脈長短
- 40) 『東醫壽世保元·辛丑本』「太陰人泛論」太陰人 有腹脹浮腫病 當用 乾藥螬蟻湯 此病 極危險證而 十生九死之病也 雖用藥病愈 三年內 不再發然後 方可論生 戒侈樂 禁嗜慾 三年內 宜恭敬心身 調養慎攝 必在其人矣

Table 3. Treatment Methods and Prescription Classification of Edema in Taeumin According to Different Editions of 『Donggisebowon』

版 本	太陰人 浮腫의 治療方法	處 方
草本卷	태음인의 부종에 黃栗이 효과가 있다 ⁴¹⁾ .	黃栗五味子膏 ⁴²⁾
甲午本	태음인의 부종은 급히 치료하여야 하며, 黃栗五味子膏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종이 시작될 때에는 黃栗을 달여 먹어 설사를 크게 몇 차례 하고나면 낫는다. 부종이 생기면 禁嗜慾 戒侈樂 調養攝身하여야 나올 수 있다 ⁴³⁾ .	黃栗五味子膏 ⁴⁴⁾
辛丑本	태음인의 부종은 乾栗蟻螬湯을 사용하며, 十生九死의 위험한 증상이다. 戒侈樂 禁嗜慾하며, 3년 동안 恭敬心身 調養慎攝하여야 한다. 태음인의 부종은 勞心焦思 屢謀不成한 사람이 설사나 이질 증세에 시달리거나 혹은 마비가 오고 소변이 잘 나가지 않으며, 식후에 더부룩하고 붓는 증상이 있고 다리에 힘이 없으면 생기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⁴⁵⁾ .	葛根浮萍湯 ⁴⁶⁾ 乾栗蟻螬湯 ⁴⁷⁾

性學을 기본으로 하는 의학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것이다.

『東醫壽世保元』의 草本卷에서 甲午本을 거쳐 辛丑本으로 점차 개초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太陰人 浮腫에 대하여 治療方法이 정밀해지고 처방의 수가 늘어났으며, 사용약물이 다양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3). 浮腫 자체가 위험하다는 인식은 草本卷부터 들어있으나⁴⁸⁾,

그것이 각 체질별로 구별되어 자세하게 서술되는 것은 甲午本부터이다. 약물의 경우에 草本卷⁴⁹⁾과 甲午本⁵⁰⁾에서는 太陰人 浮腫에 효과가 있는 黃栗을 위주로 한 黃栗五味子膏만을 언급하였다면, 辛丑本에 이르러서는 太陰人 浮腫의 寒熱을 구분하여 처방의 가짓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蟻螬가 태음인의 약물로 새로이 추가된다.

양생 및 심리치료의 방법으로는 부종에 이르기 전에 마음을 다스리고 조절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甲午本에서는 ‘禁嗜慾 戒侈樂 調養攝身’하라 하였고, 辛丑本에서는 ‘蕩滌慾火 恭敬其心’이라는 구절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이는 太陰人 浮腫의 치료가 마음을 다스리는데 있음을 더욱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41) 『東醫壽世保元·草本卷』 「病變 太陰人 浮腫 有黃栗得效
 42) 『東醫壽世保元·草本卷』 「病變 黃栗灸 百枚 五味子三十粒 或三四用付每 治浮腫
 43) 『東醫壽世保元·甲午本』 「太陰人內觸胃腕病論 太陰人一證 有腹脹浮腫病 其病太重而危也 不可不急治 當用 黃栗五味子膏 浮腫始發 黃栗二三斗炙食煮食 則泄瀉五六日大下而病愈 然浮腫危證也 三年內不再發 然後 方可論生 禁嗜慾戒侈樂 調養攝身之道 必生其人
 44) 『東醫壽世保元·甲午本』 黃栗五味子膏 黃栗 一百枚 五味子 三十粒 一服 盡日再服 則當用黃栗二百枚 日三服 則當用黃栗三百枚 生栗炙食最良 治浮腫
 45) 『東醫壽世保元·辛丑本』 「太陰人泛論 太陰人 有腹脹浮腫病 當用 乾栗蟻螬湯 此病 極危險證而 十生九死之病也 雖用藥病愈 三年內 不再發然後 方可論生 戒侈樂 禁嗜慾 三年內 宜恭敬心身 調養慎攝 必在其人矣 凡太陰人病 若待浮腫已發而 治之則 十病九死也 此病 不可 以病論之而 以死論之可也 然則如之何 其可也 凡太陰人 勞心焦思 屢謀不成者 或有久泄久痢 或淋病小便不利 食後痞滿脚腿無力病皆浮腫之漸 已爲重險病而 此時 以浮腫論而 蕩滌慾火 恭敬其心 用藥治之可也
 46) 『東醫壽世保元·辛丑本』 葛根 三錢 蘿藦子 黃芩 各二錢 紫背浮萍 大黃 各一錢 蟻螬 十箇 治浮腫裏症熱多者宜用
 47) 『東醫壽世保元·辛丑本』 乾栗 百箇 蟻螬 十箇 湯服或灸食 黃栗 蟻螬十箇 作末別用黃栗湯水調下

48) 『東醫壽世保元·草本卷』 「病變 命脉在危傾初分者 自無支撐半年之氣候 虛勞浮腫等未疾顯 有深根難撥之顯緒然 或劇而間歇 或藥而應效 若善服藥極調理而支撐一年 則一年間有一月脫病之佳兆 在中分之淺限者藥或暫應病施如故 此症已屬不治 過中分間限 則藥而益劇遂成壞症
 49) 『東醫壽世保元·草本卷』 「藥方」 石菖蒲酒 治痞滿 沈滯 日服一二盃 或三四盃 牛黃治中風 能膽解疫氣 麝香治痞悶 黃栗治泄瀉 太陰人浮腫 有黃栗得效 太陰人滿身瘡 有大服麝香 而得效者
 50) 『東醫壽世保元·甲午卷』 「太陰人內觸胃腕病論 太陰人一證 有腹脹浮腫病 其病太重而危也 不可不急治 當用 黃栗五味子膏 浮腫始發 黃栗二三斗炙食煮食 則泄瀉五六日大下而病愈 然浮腫危證也 三年內不再發然後 方可論生 禁嗜慾戒侈樂 調養攝身之道 必生其人

3. 蟪蛄에 대한 사상의학적 고찰

蟪蛄는 『東醫壽世保元·辛丑本』에서야 처음으로 등장하며, 甲午本이나 草本卷에는 보이지 않는다. 草本卷에 나온 乾栗五味子膏⁵¹⁾와 甲午本에 나오는 黃栗五味子膏⁵²⁾, 그리고 辛丑本에 나오는 乾栗蟪蛄湯⁵³⁾은 太陰人 浮腫을 치료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辛丑本에 이르러서 乾栗과 함께 들어가는 재료는 기존의五味子에서 蟪蛄로 바뀐다. 이것은 東武公이 부종을 치료하는데 있어서五味子보다 蟪蛄가 더 효과적인 약물임을 발견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기존에 분류되지 않았던 약재들을 새롭게 추가하는 과정에서 太陰人의 약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蟪蛄에 대한 기록은 북한 보건성 『東武遺稿』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肺藥에 배속된 蟪蛄에 대하여 ‘蟪蛄는 맛이 짜고 성질이 따뜻하며 뽕나무에 사는 것을 잡아 말리는데 어혈(瘀血)과 경폐(經閉), 옆구리가 단단한 것을 치료하는데 없어서는 안 된다. 즙을 바르면 눈의 예막(翳膜)을 치료하고 후비(喉痺)를 열리게 하며 나무에 찢려서 생긴 옹창(癰瘡)에 짓찢어서 붙인다’⁵⁴⁾라고 하였다. 이 내용은 『醫學入門』(1575)⁵⁵⁾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약간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⁵⁶⁾, 蟪蛄를 肺藥으로 배속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학에서 잘못 본 것과 같이 蟪蛄를 뽕나무에서 채취한다고 한 것은 잘못된 인식으로 보인다.

蟪蛄가 太陰人 약물로 배속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蟪蛄는 멍친 것을 풀어주는 작용이 있다. 『本草綱目』에서는 ‘악혈(惡血)과 어혈(瘀血)로 저린 것을 낮게 해주고, 옆구리 아래에 혈이 단단하게 멍쳐서 아프게 된 것을 깨뜨리며, 무월경을 치료한다’⁵⁷⁾라고 하였으며, ‘토혈(吐血) 후에도 흉복(胸腹)에 머물러 없어지지 않는 어혈(瘀血), 골절에 의한 울혈(鬱血)을 낮게 한다’⁵⁸⁾라고 하였다. 『東醫壽世保元·辛丑本』에서는 張仲景의 『傷寒論』을 인용하여 ‘傷寒病에 두통, 몸과 허리가 아픈 것이 당기듯 한 것, 온몸의 骨節이 다 아픈 것은 太陽傷寒이니 榮血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⁵⁹⁾라고 하였다. 이러한 胃脘受寒表寒病이 더욱 심해져 寒厥의 상황에 이르게 되면 蟪蛄가 들어간 熱多寒少湯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최근의 논문⁶⁰⁾에서도 제조 추출물이 혈전용해에 뛰어난 효과를 가진다고 하였는데, 이것으로 보아 蟪蛄는 太陰人의 혈이 멍친 것을 풀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산모의 젖이 잘 나오지 않을 때도 蟪蛄를 사용했다. 『本草綱目』에는 蟪蛄의 이명들이 나오는데, 그 중 하나인 乳齋는 젖을 통하게 하는 효능에 따라 이름 붙여진 것이다⁶¹⁾. 출산 후 약 일주일 동안은 젖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유아가 젖을 잘 빨지 못하여 젖이 잘 배출되지 못하면, 유방이 단단해지면서 통증이 생기며 젖의 분비도 저하되는데 이것이 울혈, 즉 젖몸살이다. 『本草綱目』과⁶²⁾ 『鄉藥集成方』(1433)에는⁶³⁾ 산후에 몸이 풀리지 않아 젖이 안 나올

51) 『東醫壽世保元·草本卷』 乾栗五味子膏 黃栗灸 百枚 五味子 百十粒 治浮腫
52) 『東醫壽世保元·甲午本』 黃栗五味子膏 黃栗 一百枚 五味子 三十粒 一服 盡日再服 則當用黃栗二百枚 日三服 則當用黃栗三百枚 生栗炙食最良 治浮腫
53) 『東醫壽世保元·辛丑本』 乾栗蟪蛄湯 乾栗 百箇 蟪蛄 十箇 湯服 或炙食 黃栗 蟪蛄 十箇 作末別用 黃栗湯水調下 治浮腫表症寒多者 宜用
54) 『東武遺稿』 「肺藥」 蟪蛄 鹹溫在桑枯 瘀閉脇緊不可無 汁點眼翳開喉痺 木刺癰瘡碎搗敷
55) 『醫學入門』 「本草·蟪蛄」 蟪蛄 鹹溫在桑枯 瘀閉脇堅不可無 汁點眼翳開喉痺 木刺癰瘡碎搗敷
56) 박성식.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의 淵源과 意義에 대한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2):1-9

57) 『本草綱目』 「蟪蛄」 惡血血瘀癰氣 破折血在脇下堅滿痛月閉 目中淫膚 青翳白膜 本經
58) 『本草綱目』 「蟪蛄」 療吐血在胸腹不去 破骨踠折血結 金瘡內塞 產後中寒 下乳汁 別錄
59) 『東醫壽世保元·辛丑本』 「太陰人胃脘受寒表寒病論」 太陽傷寒 頭痛發熱 身疼腰痛 骨節皆痛 惡寒無汗而喘 麻黃湯主之 註曰傷寒 頭痛身疼腰痛 以牽連百骨節俱痛者 此 太陽傷寒 榮血不利故也
60) 강민석, 김신, 임치혜, 초계승, 김효수, 김일환, 박혜선, 서은희. 蟪蛄 추출물의 혈전 용해 활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7;19(1):160-170.
61) 『本草綱目』 「蟪蛄」 蟪蛄 方言 其蟪蛄 象其蠶物之聲 或謂是齊人曹氏之子所化 蓋謬說也 蟪蛄 言其狀肥也 乳齋 言其通乳也 別錄作勃齋 誤矣
62) 『本草綱目』 「蟪蛄」 弘景曰 大者如足大趾 以背滾行 乃駛於脚 雜踏蹄 作糞於乳母 不能別之

때 蟻螬를 쓰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蟻螬가 氣液之氣의 순환을 도와주어 산모의 뭉친 기운을 풀어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蟻螬는 뛰어난 發散力으로 風邪를 汗으로써 풀어낸다. 『東醫寶鑑』에 의하면 ‘제조는 破傷風을 치료하는데 지극히 신묘한 효과가 있다. 처음 파상풍이 온 것을 깨달았으면 급히 거름 안에서 제조(蟻螬) 1~2개를 꺼내어 손으로 눌러 입에서 나온 체액을 파상처(破傷處)에 바르고, 옷을 두껍게 덮는다. 조금 기다리면 상처 부위가 마비된 느낌이 오면서 양 옆 구리에서 땀이 조금 나는데 風이 나가게 되면 효과를 본다⁶⁴⁾. 風으로 단단하게 당기는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제조 3~5개를 취하여 꼬리를 잘라낸다. 뱃속의 누런 물을 상처 입구에 바르고, 다시 적은 양을 뜨거운 술에 타서 마시면 땀이 나면서 효과가 있다⁶⁵⁾. 또 蟻螬를 취하여 상처 위에 올려놓고 벌레 꼬리 위에 속땀을 떠도 효과가 있다⁶⁶⁾’라고 하였다.

약 700년 전의 소아과서적인 『嬰童百問』에 ‘장태윤전(張太尹傳)에는 파상풍을 치료하는 신묘한 처방이 있는데, 제조의 등을 구부러지도록 힘껏 눌러 입에서 체액을 토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것을 취하여 상처 입구에 바른다. 몸에 마비감이 느껴지고 땀이 나면 살아나지 못하는 자가 없다. 어린 아이의 이마 위쪽이 넘어져 깨졌는데, 7일이 지나 파상풍이 되었다. 이에 의거하여 치료하니 시간이 지나 나았다⁶⁷⁾’라고 하였다. 또한 『舟村新方』(1687)에도

破傷風에 걸렸을 때 굼벵이의 즙을 내어 상처 부위에 바르고 따뜻한 술과 함께 먹으면 땀이 나게 된다는 내용이 있다⁶⁸⁾.

太陰人의 경우 병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汗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⁶⁹⁾. 太陰人表寒證에 蟻螬를 복용하는 것은 그 呼散之氣를 이용하여 發汗 치료를 하는 것이다. 寒厥이 4~5일 내지는 5일 이상 지속되면서 無汗의 증상이 있을 때는 險證이며, 이는 상당히 위험한 증세인데 熊膽散이나 寒多熱少湯에 蟻螬 5~7개를 넣어서 사용한다고 한다⁷⁰⁾. 그러나 응답은 그 효과는 매우 뛰어나나⁷¹⁾ 흔하지 않은 약재이기 때문에⁷²⁾ 그에 견줄만한 처방으로 寒多熱少湯에 蟻螬를 넣어서 사용하게 된다. 이것으로 風邪로 인한 太陰人 傷寒表寒證을 땀으로 풀어내는 蟻螬의 發散力(呼散之氣)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셋째, 蟻螬는 濁氣를 제거하는 약이다. 太陰人에게 부종이 발생하게 되면 蟻螬가 들어간 葛根浮萍湯, 乾栗蟻螬湯을 사용한다. 葛根浮萍湯은 裏症으로 熱이 많은 사람⁷³⁾, 乾栗蟻螬湯은 表症으로 寒이 많은 사람⁷⁴⁾에게 사용하는데,

63) 『鄉藥集成方』「產後門 治產後乳汁不下 漏蘆三分 瓜蒌根 土瓜根各一兩 木通二兩 蟻螬五枚微炒 右搗細爲散 不計時 以溫酒調下一錢
64) 『東醫寶鑑』「破傷風」 蟻螬 治破傷風 極有神效 初覺急取 糞推內 蟻螬虫 一二箇 用手捏 住待虫口中吐些少水就 抹在破傷處 身穿厚衣裳 待片時瘡口 覺麻兩脅微汗 風出立效
65) 『東醫寶鑑』「破傷風」 如風緊急 速取此虫三五箇 剪去尾 將肚內黃水 塗瘡口 再滴些少入熱酒 飲之 汗出入效 丹心
66) 『東醫寶鑑』「破傷風」 又取 此虫 安瘡上 艾灸虫尾 卽效 類聚
67) 『本草綱目』「蟻螬」 又按魯伯嗣嬰童百問云 張太尹傳 治破傷風神效方用蟻螬 將駝脊背捏住 待口中吐水 就取抹瘡上 覺身麻汗出 無有不活者 子弟額上跌破 七日成風 依此治之 時間就愈

68) 『舟村新方』「破傷風」 一方蟻螬 굼벵이 取汁塗傷處 又調溫酒多服取汗
69) 『東醫壽世保元·辛丑本』「四象人辨證論」 太陽人 小便旺多則 完實而無病 太陰人 汗液通暢則 完實而無病 少陽人 大便善通則 完實而無病 少陰人 飲食善化則 完實而無病
70) 『東醫壽世保元·辛丑本』 太陰人 胃腕受寒表寒病 論曰 太陰人病 寒厥四日而 無汗者 重證也 寒厥五日而 無汗者 險證也 當用 熊膽散 或 寒多熱少湯 加蟻螬五七箇
『普濟演說』 寒多熱少湯 薏苡仁三錢 蘿卜子二錢 麥門冬吉更黃芩杏仁麻黃各一錢 乾栗七介 治傷寒 厥四五日 汗不出 或加蟻螬 五七九介
71) 『東武遺稿』「肺藥」 熊膽 味苦 熱蒸黃疸 惡瘡蟲痔 五疳驚癩 ○熊膽 爲肺元帥之藥 能驅逐侮肺之邪 而其功如脾之炮附子 腎之石膏也
72) 『東醫壽世保元·辛丑本』 太陰人 胃腕受寒表寒病 至于十二日 忽然 食粥二碗 斯時 若論其藥則 熊膽散 或者可也而 熊膽 闕材 自念此人 今夜必死矣 當日初昏 呼吸 暫時少定
73) 『東醫壽世保元·辛丑本』 葛根浮萍湯 葛根三錢 蘿菔子 黃芩 各二兩 紫背浮萍 大黃 各一兩 蟻螬 十箇 治浮腫裏症熱多者 宜用
74) 『東醫壽世保元·辛丑本』 乾栗蟻螬湯 乾栗 百箇 蟻螬 十箇 湯服 或炙食 黃栗 蟻螬 十箇 作末別用 黃栗湯水調下 治浮腫表症寒多者 宜用

蟬蟻는 한열에 상관없이 두 처방에 유일하게 공통으로 들어가 있다. 이는 太陰人 浮腫에 蟬蟻의 강력한 呼散之氣를 이용하여 濁氣를 제거하는 것이다.

『東醫壽世保元』에서는 ‘오랜 설사나 이질, 임병(淋病)으로 인한 소변불리, 식후비만(食後痞滿)과 다리에 힘이 없는 증상은 대개 부종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니 이미 위험한 병인 것이다’⁷⁵⁾라고 하였다. 부종으로 나아가는 여러 증상 중에서 ‘太陰人은 痢疾病에 걸리면 소장의 中焦가 안개와 같이 가득 차게 막힌 것이다’⁷⁶⁾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질의 증상이 中焦에 濁氣가 묻쳐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食後痞滿과 脚腿無力 또한 태음인이 허약해져 氣液之氣의 순환이 잘 안되면 濁氣를 몰아내지 못하여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데, 이때 拱辰黑元丹을 사용한다⁷⁷⁾. 拱辰黑元丹은 태음인의 虛勞를 치료하는 처방인데, 그 안에 蟬蟻가 들어있다는 것은 虛勞로 인한 浮腫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本草綱目』에 의하면 ‘오(吳)나라 중서랑(中書郎) 성충(盛冲)의 어머니인 왕(王)씨가 눈이 멀었는데, 여자종이 굶병이를 썰서 드시도록 하였고 왕씨는 맛있게 먹었다. 충(冲)이 돌아와 이것을 알고 어머니를 끌어안고 통곡을 했는데, 어머니의 눈이 즉시 열렸다. 이것은 『本經』에서 눈 안의 청예(靑翳)와 백막(白膜)을 치료

한다는 것과 같고, 『藥性論』에서 즈을 눈에 뿌리면 예장(翳障)을 없앤다는 설과 서로 합치되는 것이다. 내가 일찍이 이로써 환자를 치료하여 효험을 얻었던 것으로 인하여 기록하여 후인들에게 남긴다’⁷⁸⁾라고 하여 蟬蟻의 효능이 뿌연게 가려진 것을 제거하여 맑게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蟬蟻가 眼疾을 치료하는 내용은 『東醫寶鑑』⁷⁹⁾과 『古今圖書集成』⁸⁰⁾에도 인용되어 있다. 이것을 동무공이 보고 ‘蟬蟻는 탁한 기운을 제거하여 맑게 해주는 呼散之氣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도 있겠다.

Ⅲ. 結 論

太陰人 浮腫의 원인과 치료방법 그리고 치료약물로서의 蟬蟻에 대하여 古書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太陰人에게 浮腫의 증상이 오는 것은 虛勞로 인하여 氣液之氣의 순환이 정체되는 경우, 慾心을 내는 貪人이 되거나 侈樂하고 즐겨 욕심을 내어 保命之主인 呼散之氣가 약해져 命脈實數가 줄어들게 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2. 太陰人 浮腫의 치료방법과 處方은 草本卷에서 甲午本을 거쳐 辛丑本에 이르면서 점차 性情論과 관련된 心理치료의 내용과 養生法이 중요시되었으며, 處方의 가짓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蟬蟻는 『東醫壽世保元』의 草本卷과 甲午本

75) 『東醫壽世保元·辛丑本』「太陰人泛論 凡太陰人病 若待浮腫已發而治之則十病九死也 此病不可以病論之而以死論之可也 然則如之何其可也 凡太陰人 勞心焦思 屢謀不成者 或有久泄久痢 或淋病小便不利 食後痞滿脚腿無力病 皆浮腫之漸 已爲重險病而此時以浮腫論而蕩滌慾火 恭敬其心 用藥治之可也

76) 『東醫壽世保元·辛丑本』「四象人辨證論 太陽人 噎膈則胃脘之上焦 散豁如風 太陰人 痢病則小腸之中焦 窒塞如霧 少陽人 大便不通則胸膈 必如烈火 少陰人 泄瀉不止則臍下 必如水冷

77) 『東醫壽世保元·辛丑本』「太陰人泛論 太陰人證 有食後痞滿 腰脚無力病 宜用 拱辰黑元丹 鹿茸大補湯 太陰調胃湯 調胃升清湯

『東醫壽世保元·辛丑本』拱辰黑元丹 鹿茸四五六兩 山藥 天門冬 各四兩 蟬蟻 一二兩 麝香 五錢 煮烏梅肉爲膏 和丸 梧子大 溫湯下五七十丸 或 燒酒下 虛弱人裏症多者 宜用

78) 『本草綱目』「蟬蟻 按陳氏經驗方云 晉書吳中書郎盛冲母王氏失明 婢取蟬蟻蒸熟與食 王以爲美 冲還知之 抱母慟哭 母目即開 如本經治目中靑翳白膜 藥性論汁滴目中 去翳障之說相合 予嘗以此治人得驗 因錄以傳人

79) 『東醫寶鑑』「眼 蟬蟻 主目中淫膚靑翳白膜 又去腎障療靑盲 取汁滴目中 又焙乾作末服 盛彥母食之 眼復明 雖是孝 感亦物性宜然 稻麥芒入眼不出 以新布覆目上 取蟬蟻 從布上摩之 其芒出着布上良 (本草)

80) 『古今圖書集成』「蟬蟻 晉書盛彥傳 彥母王氏 因疾失明 彥每言及未嘗不流涕 於是 不應辟召 躬自侍養 母食必自哺之 母既疾久 至於婢使數見推搡 婢忿恨何言 暫行 取蟬蟻炙飴之 母食以爲美 然疑是異物 密藏以示彥 彥見之 抱母慟哭 絕而復蘇 母目豁然即開 從此遂愈

에는 보이지 않으나 辛丑本에 太陰人 浮腫을 치료하는 약물로 처음 등장한다.

3. 『東武遺稿』의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에서 蟪蛄가 뽕나무에 산다고 한 것은 『醫學入門』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다. 또한 『東醫寶鑑』 및 기존의 여러 의서에서도 蟪蛄의 서식지에 대하여 혼동한 것이 많았다. 蟪蛄는 유사한 종이 많아 헛갈리기 쉬우나, 糞草에 살며 등으로 기어가는 독특한 특징으로 보아 꽃무지풍뎡이류(*Family Cetoniidae.*)의 유충으로 보아야 한다.

4. 蟪蛄는 太陰人の 氣液之氣 순환을 도와 뭉친 것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고, 뛰어난 發散力으로 風邪를 汗으로써 풀어낸다. 또한 강력한 呼散之氣를 이용하여 太陰人の 濁氣를 제거해준다.

IV. 參考文獻

1. 李濟馬著, 韓斗正 편집. 『東醫壽世保元』 7版. 1941.
2.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復元本. 四象體質醫學會, 서울, 2001.
3. 李濟馬原著, 朴性植譯解.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集文堂, 서울, 2003.
4. 李濟馬原著, 金達來編譯. 東醫壽世保元 草藥. 鼎談, 서울, 2001.
5. 李濟馬著, 량병무, 차광석譯. 東武遺稿. 海東出版社, 1999.
6. 許浚. 東醫寶鑑. 南山堂, 서울, 1987.
7. 李梴. 醫學入門. 南山堂, 서울, 1985.
8. 李時珍. 本草綱目. 中國醫學大系 40-42卷. 여강출판사, 서울, 1988.
9. 郭璞 註. 爾雅. 學民文化社, 1992.
10. 許慎 撰,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大星文化社, 서울, 1990.
11. 柳重臨. 增補山林經濟. 韓國醫學大系 44卷. 여강출판사, 서울, 1992.
12. 憑虛閣 李氏, 鄭良婉 譯註. 閩閩叢書 寶晉齋, 1975.
13. 鄒澍 著, 임진석 옮김 本經疏證. 대성의학사, 서울, 2001.
14. 許浚. 診解痘瘡集要. 韓國醫學大系 37卷. 여강출판사, 서울, 1992.
15. 徐有渠. 仁濟志. 韓國醫學大系 45-48卷. 여강출판사, 서울, 1992.
16. 申旻. 舟村新方. 韓國醫學大系 15卷. 여강출판사, 서울, 1992.
17. 權採, 俞孝通, 盧重禮, 朴允德. 鄉藥集成方. 정담, 서울, 2000.
18. 孔子 編. 詩經. 학민문화사.
19. 지자미상. 鄉藥救急方. 韓國醫學大系 1卷. 여강출판사, 서울, 1992.
20. 朝鮮總督府. 朝鮮語辭典. 朝鮮總督府, 京城(서울), 大正9年(1920).
21. 陳夢雷 編. 古今圖書集成. 52卷·禽蟲典 下. 鼎文書局, 1977.
22. 김진일 글, 이원규 사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곤충 백가지. (주)현암사, 서울, 2002.
23. 우건석. 昆蟲分類學. 집현사, 서울, 1988.
24. 박해철. 딱정벌레. 다른세상, 서울, 1992.
25. 南豐鉉. 借字表記法研究. 檀大出版部, 서울, 1981.
26. 文成煥. 浮腫에 대한 證治醫學과 四象醫學의 病理와 藥理의 연관성의 考察. 사상학회지. 1993;5(1):133-138.
27. 박성식.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의 淵源과 意義에 대한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 14(2):1-9.
28. 권승만, 김일환, 박혜선, 김효수, 임치혜, 초재승. 東醫壽世保元에서 이용된 蟪蛄의 起源에 대한 文獻的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6;18(1):22-29.
29. 강민석, 김신, 임치혜, 초재승, 김효수, 김일환, 박혜선, 서은희. 蟪蛄 추출물의 혈전 용해 활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7; 19(1):160-170.